

너무 무리했을까? ...윤석민도 부상 KIA 마운드 누가 지키나

■윤석민 올시즌 성적 (5일 현재)

평균자책	승	패	승률	투구이닝	탈삼진	4사구
3.00	4	12	0.250	108	62	41

오른쪽 아킬레스건 통증... 후반기 복귀
마땅한 대체카드 없어 호랑이 굴 답답

“(윤)석민이, 너 마저...”
이런 것을 두고 ‘얕친데 얕친격’이라고 하나 보다.
올 시즌 시작과 동시에 붕괴된 KIA 선발진의 유일한 생존자인 ‘에이스’ 윤석민(21·사진)이 부상으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윤석민은 지난 4일 부산 롯데전에서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부어올라 1이닝만에 1실점한 채 교체됐다. 윤석민은 1회말 두 번째 타자로 나선 롯데 이인규에게 우월 1점 홈런을 허용하고 2사 만루를 가까스로 막아낸 뒤 침묵거리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지난달 29일 광주 LG전부터 오른쪽 아킬레스건에 통증을 느껴왔던 윤석민은 이날 경기 도중 이 부위의 통증이 재발해 조기 강판된 것.

교체 직후 KIA측은 “다행히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덕아웃에서 얼음 찜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일 롯데 지정병원인 부산 흥재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오른쪽 아킬레스건 건염 관정을 받았다. 건염은 염증이란 의미로 2주 이상의 치료가 불가피 하게됐다.

따라서 복귀시점은 후반기로 미뤄졌고, 훈련과정이 2주일후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운드에 서는 날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나홀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온 윤석민이 하차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KIA마운드도 비상이 걸렸다.

올 시즌 KIA는 부상자들이 즐비한 가운데 이현근 홀로 분전 중인 타선과 더불어 마운드 역시 윤석민 하나로만 어렵게 버텨왔다.

시즌 초 김진우의 2군행, 용병투수 예서튼의 퇴출, 이대진의 부상 등 KIA 마운드는 ‘초토화’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붕괴됐고, 윤석민만 홀로 남아 타선의 도울없이 호투소를 해냈다.

모두 17개임에 나서 4승 12패로 표면적인 성적표는 초라하지만, 방어율 3.00(4위)을 기록하며 탈삼진 62개(9위)나 잡아내는 등 팀 에이스의 역할을 묵묵하게 해냈다.

특히 선발 투수의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투구수도 1천683개로 4위, 이닝수도 108이닝으로 3위를 기록할 만큼 팀 마운드 운영에도 힘을 보탤다.



하지만 너무 무리했던 탓일까. 윤석민은 여름의 문턱 앞에서 주저앉았다. ‘철인’이 아닌 이상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서머리그’ 부활소로 탈꼴찌를 자신했던 KIA는 윤석민의 이탈로 더욱 힘든 여름시즌을 보내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윤석민을 대체할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크로스 카운터

5일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기 전국 복싱대회 81kg급이하 경기에서 서울시청 김정수(왼쪽)와 서귀포시청 정상철이 펀치를 주고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금빛 역영’

사라포바, 비너스에 완패
윌블던테니스 16강전

女 일반 800m 계영 대회
전남중 고영호 100m 우승

대통령배 전국 수영

선보경·박경화·이은혜·이지선(광주광역시체육회)조가 제26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금빛물살을 갈랐다.

선보경·박경화·이은혜·이지선조는 5일 전주 완산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여자일반 계

영 800m에서 8분 36초35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고영호(전남중 3)도 이날 남중 자유형 100m에서 55초45로 여의도중 권오국을 0.52초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지선은 여자일반 배영 50m에서 31초09로 대회신기록을 세웠으나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으며 박경화도 여자일반 접영 100m에서 1분03초57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마리아 사라포바(세계랭킹 2위·러시아)가 총상금 207억원이 걸린 2007 윌블던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4회전에서 탈락했다.

2004년 이 대회 우승자인 사라포바는 5일 영국 윌블던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끝난 16강전에서 비너스 윌리엄스(31위·미국)에게 0-2(1-6 3-6)로 완패, 쓸쓸히 집을 썼다.

포미저대회 4강 전문 선수로 유명한 사라포바가 4회전을 넘지 못하기는 지난해 프랑스 오픈 이후 1년 만이다. 2005년 이 대회 준결승에서 윌리엄스에게 패했던 그는 설욕전에도 실패하며 충격을 맞았다.

무등기 우승 장충고, 황금사자기 2연패

고교야구...천안북일 3-0 제압

지난달 열린 제 14회 무등기대회 우승팀인 장충고가 제61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도 정상에 등극했다.

장충고는 5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천안북일고와 대회 결승에서 김진철, 최원제의 홈런 2방과 박민석-최원제의 호투에 힘입어 3-0으로 이겼다.

장충고는 지난 해에 이어 황금사자기를 2연패했으며 지난 달 무등기 우승에 이어 또 한번 고교 정상에 등극했다.

장충고는 2회말 2사에서 김상호의 좌전 안타 뒤 김진철이 왼쪽 담장을 넘는 투런홈런을 터뜨려 2-0으로 앞섰다. 이어 4회 4번

타자 최원제가 우월 솔로 아치를 그려 1점을 보태 승기를 굳혔다.

장충고는 선발투수 박민석이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최원제가 7회 무사 2루에서 구원투수로 나와 9회까지 3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잡아내며 승리를 지켜냈다.

장충고는 이를 전 광주 동성고를 연장 12회 끝에 힘겹게 꺾고 진출한 결승에서 안정감 있는 마운드와 짜임새 있는 수비진, 응집력을 갖춘 타선을 앞세워 낙승을 거뒀다.

최원제는 이번 대회에서 3승을 거두며 홈런 2개, 7타점으로 투타에서 맹활약해 최우수 선수로 뽑혔고 결승전에서 승리투수가 된 박민석은 우수투수로 선정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마린보이’ 박태환 고려대 진학 결정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도)이 고려대 진학을 결정했다.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인 ‘TEAM GMP (Gold Medal Project)’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박태환의 아버지 박인호(56)씨는 지난 4일 “태환이의 대학 진학을 놓고 가족들이 협의한 끝에 고려대로 결정했다”며 “오는 9월 초 고려대 수시 2학기 모집에 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태환의 영입에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단국대, 한체대 등 5개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역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난 뒤 공부를 계속해 대학교수가 되려는 박태환은 고려대와 연세대를 놓고 고민해 왔다.



6일(금)
▲코파 아메리카(콜롬비아-미국)(07:20·SBS스포츠), <아르헨티나-파라과이>(09:35·SBS스포츠)

- ▲MBC 골프투어 3차대회 코리아 골프 아 트빌리지 오픈 최종R(14:00·MBC)
- ▲제6회 천안시장배 전국실업 볼링대회(14:00·KBSN Sports)
- ▲일본 프로야구<주니치-한신>(17:50·SBS스포츠), <야쿠르트-요미우리>(18:00·MBC ESPN)
- ▲프로야구<한화-LG>(18:00·KBSN Sports)

- ports)
- ▲윌블던 테니스 여자단식 준결승(21:30·MBC ESPN)
- 7일(토)
- ▲PGA투어 AT&T 내셔널 2R(04:00·SBS스포츠)
- ▲FIFA U-20 월드컵<아르헨티나-북한>(05:50·SBS스포츠)

한해감염예방 선수가입-다들비이오백

감염예방기기 렌탈사업 개시!

1년에 한번쯤 귀중한 내성약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는 기회가 있습니다.

1. 렌탈사업의 필요성
2. 렌탈사업의 장점
3. 렌탈사업의 절차

주 다들비이오백 전남 목종판 | 10621 531-2811 | 011-9816-5258

다들비이오백

1. 렌탈사업의 필요성
2. 렌탈사업의 장점
3. 렌탈사업의 절차

주 다들비이오백 전남 목종판 | 10621 531-2811 | 011-9816-5258